

민 진 전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불교 교리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 매주 갖는 법회내용이 다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로 연락바랍니다. -

이달의 법구경: -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것일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옹양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다시 본다

부처님 ‘전법열망’ 가슴에 되새기며 ‘정법의 돌기둥’ 세워가자

‘부처님의 전도선언’ “나는 하늘의 올가미와 인간의 올가미, 모든 올가미를 벗어났다. 수행자들아, 그대들도 하늘의 올가미와 인간의 올가미, 모든 올가미를 벗어났다. 수행자들아, 전법하러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신(神)들과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유익하고 중간도 유익하고 끝도 유익하며, 내용도 유익하고 형식도 유익한 담마(法)를 가르쳐라. 오로지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드러내라. 세상에는 눈이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만약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들은 벗어날 것이다. 수행자들아, 나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쉼나니가마로 가리라. ... ’ <SN □.105 Mv 1.11.1 『雜阿含經』 39. 16>

이것이 바라나시 사슴동산에서 행한 ‘부처님의 전법선언’이다. ‘부처님의 전법부촉’ ‘전도선언’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전법선언’은 가장 오래된 빠알리-니까야로 평가되는 <쌍웃다니까야> 가운데 ‘올가미의 경’으로 설해져 있고 초기 비나야(律藏)인 <마하박가> 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雜阿含經> 에도 나와 있다.

사부대중이 치열한 연기적 사회의식으로 각성, 사회의 모든 고통 자신의 고통으로 아파해야

부처님이 사슴동산에서 60 명의 대중들 앞에서, ‘수행자들아, 전법하러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한 것은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정각을 성취한 바로 그 해, 기원전 589 년의 일이다. 정각을 성취하고 난 부처님은 최초의 현실적 문제 앞에 부닥쳐 고민하게 된다. 그것은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내가 깨달은 깊고 놀라운 이 가르침을 혼돈에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범천권청(梵天勸請)’이나 ‘연꽃보관(蓮花普觀)’ 등의 사건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경전적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부처님이 처음부터 전도전법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골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불교가 최초 출발점에서부터 ‘전법의 종교’ ‘전도전법의 종교(A Religion of Mission)’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불교의 이러한 전법성(傳法性)은 ‘전법 선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되고 있다.

연기적 사회의식으로의 대전환

왜 부처님은 이렇게 전도전법을 열렬히 추구한 것일까? 불교사의 첫머리에서, 수행자들, 4 부대중들의 신성한 종교적 사명으로 부촉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부처님이 정각 직후부터 전법 문제로 고심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 문제는 아마 깨달음의 본질과 관련해서 고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깨달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성도 직후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은 연기(緣起)에 마음을 집중하여 이런 순서로 관찰하고 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날 때 이것이 생겨난다. 다시 말하면, 무명(無明)이 있을 때 행(行)이 있고 행이 있을 때 식(識)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멸할 때 이것이 멸한다. 다시 말하면, 무명이 멸할 때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할 때 식이 멸하고 ”

깨달음이란 연기법(緣起法, Paticca-samuppada)을 여실히 보는 것이다. 연기법을 본다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현상과 존재, 사물들을 조건적 관계로 보는 것이고, 이 세계를 연기적 세계, 곧 법계(法界, Dhamma-dhatu)로서 관찰하고 사유하며 행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법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규정하고, 이 법계는 상주하는 것이며(法界常住, thita va sa dhatu) 이 법계 속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상의적(相依的) 불이관계(不二關係)로서 동반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기의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본다. 연기의 거울에 비춰 나의 실상을 여실히 보게 된다. ‘나의 것’ ‘이것이 나’라고 주장하며 거듭나기(再生)를 갈망해온 그 나(自我)가 실제로는 어둡고 이기적인 5온적 자아의식(自我意識)에 불과한 허상(虛像)임을 깨닫고, 이러한 자아를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떠나가면 곧 벗어난다. 해탈한다. 이것이 바로 ‘무아(無我)의 담마’이다.

이것은 무아가 존재(存在)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意識)의 문제라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아의 담마’를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다면 누가 윤회하는가? 누가 짓고 누가 받는가?’, 이렇게 회의에 빠지지만, 이것은 무아를 존재-비존재의 문제로 착각한 데서 연유하는 극단론이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는 존재-비존재의 분별은 오온이 조작해낸 허위의 자아의식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오온적 자아의식을 모든 고통과 죽음, 윤회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중도(中道), 곧 연기를 봄으로써 이 어둡고 이기적인 자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수행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법선언’에서 말하는 ‘올가미’란 바로 이 오온적 자아의식을 일컫는 것으로, 흔히 ‘악마’로 상징된다. ‘오온에 집착하면 악마에 묶이고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악마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설하는 것도 바로 이 도리이다.

무아(無我)란 무엇인가. 오온, 오온적 자아의식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곧 연기적 세계-법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아와 세계를 법계로서 관찰하고 사유하며 행위하는 것이다.

법계(法界)란 무엇인가. 연기적 세계란 실제로 무엇일까? 그것은 곧 이 사회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하늘사람(天人, Devata)들, 신(神)들, 악마들, 동물들, 산과 내와 숲들, 하늘과 땅 ...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적 우주적 사회일 것이다. 집착으로 들끓는 이기적 자아의식의 올가미를 벗어날 때, 우리들은 거기서 가장 먼저 이 세계, 이 사회를 만난다.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조건(緣)해서 내가 존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조건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생겨나는 거대한 네트워크(Network)를 본다. 많은 사람들의 무지(無知), 이 사회의 무지를 떠나서 무명(無明)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 사회적 민중적 각성을 떠나서 나의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대하고 미묘한 한마당-장(場, field)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중생은 이 세계와 관계 맺고 이 세계와 어울린다.’ ‘여러 가지 세계를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획득이 생겨난다.’고 거듭 강조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가난하고 외로운 전법의 고행자, ‘전도하러 떠나라’ 부처님 당부 잊지 말아야

무아란 무엇일까? 나 - 자아의식을 벗어난다는 것, 해탈열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사회의식(社會意識)으로의 일대전환일 것이다. 오온적 자아라는 허위의식을 벗어나 연기적 사회의식으로 전환하는 것, ‘나의 것’ ‘이것은 나다’라는 이기적 탐욕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깨달음을 위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헌신적인 사회적 변혁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사회적 변혁의 삶을 통하여, 사회적 변혁의 실천을 조건으로 해서 나를 확립해가는 일대전환일 것이다. 기원전 589년, 바라나시 사슴동산, 불교사의 출발점에 서서, ‘전법하러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모순과 고통에 찬 인도 사회를 근원적으로 변혁하지 않고서는 만인의 각성, 만인의 깨달음 즉 ‘대중전성’이라는 궁극적 실상을 획득해낼 수 없다는 깨달음의 긴절한 발로로 보인다. 이것은 전도전법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거나 깨달음 이후의 제도중생이 아니라 깨달음의 본질 그 자체, 연기적 각성 그 자체의 자연발로라는 깊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초기대중들의 전법운동은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출발부터 대중적 민중적 개중운동으로 추구되었다. 35세의 청년 부처님은 집단 개중한 까사빠의 무리 천여 명을 이끌고 마가다의 대로를 따라 수도 라자가하로 당당히 행진해 갔다. 12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부처님 앞에

귀의하였다. 이후에도 부처님과 초기대중들의 전법행진은 계속되었다. 대상(隊商)들.상인들은 수레와 상선을 몰고 강가 강 물길과 대륙을 뛰어넘어 가르침을 전파하고 불교세계를 개척해갔다. 머지않아 광대한 ‘불교의 인도’를 개척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부처님의 이 장엄한 승리는 무엇 때문일까? 초기전법운동의 성공의 조건들은 무엇일까?

첫째, 4 부 대중들의 의식의 전환을 선행하는 것이다.

초기전법운동의 빛나는 성공을 담보한 가장 주요한 조건은 그들 4 부 대중들의 치열한 사회의식인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의 끊임없는 정복전쟁과 군주들의 폭압적 통치로 인한 민중들의 희생,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소외계층의 빈곤, 카스트 체제로 인한 수많은 하층민들의 비인간적인 몰락, 여성들의 천민적 차별화, 가치관의 혼돈... 부처님과 초기대중들은 이러한 사회적 무지와 악업. 이기적 집단무의식을 변혁함으로써 만인의 깨달음,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려는 연기적 사회의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초기대중들의 이 치열한 연기적 사회의식과 사회변혁의 열정 - 이러한 심리적 동기들이 그들을 험한 강과 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게 한 전법운동의 동력인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깨달은 뒤에 전법도생 하겠다’ 그들에게 이런 탐욕스런 이기적 허위의식’ 악마의식이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사회의식은 명료하고 그들의 향마(降魔)의지는 확고한 것이었다.

둘째, 철저하게 부처님의 정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전도선언에서 ‘처음도 유익하고 중간도 유익하고 끝도 유익하게...’라고 가르치고 있다. 처음과 끝이 유익하고 내용과 형식이 유익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부처님의 담마, 부처님의 정법을 설하고 실천해 보이는 것일 것이다. 초기경전들을 보면, 철저하다 싶은 정도로 부처님의 근본적인 담마로 관철되고 있다. ‘연기법’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5 온-무아’, ‘12 처’, ‘18 계’, ‘4 계 8 정도’, ‘7 각지’ 등이 서로 상응하며 배치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근본 담마에 집중되어 있다. 이 근본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철두철미 스승의 담마에 의지하는 바로 이러한 정법 중심주의가 초기전법운동의 시민적 민중적 성공을 실현해낸 내면적 조건이 된 것이다.

셋째, 삶으로서 담마의 실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연기법과 5 온-무아.12 처.18 계 - 이런 담마들이 솔직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여기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과 담마의 교사들이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담마들의 실재를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다. 출가대중들은 아침마다 누더기 입고 발우 들고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 밥을 빌고 가르침을 설하고 축복을 내림으로써 무아의 법을 직관적으로 열어 보였다. 재가대중들은 힘써 노동하고 번 재물을 널리 보시하고 5 계를 지킴으로써 사회적 변혁의 삶을 실제적으로 육화(肉化)시켜 드러낸 것이다. ‘전법선언’에서 ‘오로지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드러내라’라고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런 삶의 조건을 깨우치는 것이다. 부처님의 삶이 최선의 담마이고 부처님같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깨달음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들의 다짐: “수행자들이, 전법하러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길로 가지 말라.”

이제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불자대중들에게 분부하시는 부처님의 지엄한 ‘전법 선언’으로 들린다.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살벌한 종교적 문명적 경쟁 상황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전하고 살아남으려면, 한국불교는 절마다 집마다 정법의 돌기등을 우뚝 세우고 사회적 변혁의 당간을 드높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부대중이 치열한 연기적 사회의식으로 각성하고 이 사회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한국불교 자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면서 그 해결을 추구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부대중이 저마다 전법사, 법사가 되어 무소의 빨처럼, 온갖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홀로 가난하고 외로운 전법고행의 길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길 가운데 몸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 이 삼보현신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사리(舍利) 아니겠는가. 바라나시 사슴동산에서 ‘전법하러

떠나가라'고 하던 부처님의 목소리가 지금 사방사자의 포효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 불교신문 신년 특집에서 발췌 -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법

-아들 라훌라 가르치는 부처님, 父情왕관아닌 해탈의 길 물려줘-

부처님이 왕사성 칼란다카 대나무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도 출가하여 왕사성 근처 온천림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라훌라를 가르치기 위해 몸소 온천림으로 찾아왔다. 라훌라는 부처님이 오시자 제자의 예로써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 드렸다. 발을 씻고 난 부처님이 대야의 물을 반쯤 쏟아버리고 라훌라에게 말했다.

“라훌라야. 너는 곧잘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면 대야에 물을 반쯤 쏟아버린 것처럼 수행의 공덕이 적어진다.”

부처님은 이어 나머지 물을 다 쏟아버리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대야에 물을 다 쏟아버린 것처럼 수행의 공덕도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짓궂은 장난과 망령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다시 라훌라에게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라훌라는 ‘얼굴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살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타일렀다.

“라훌라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즉 ‘이 일이 깨끗하고 옳은 일인가, 남에게 피로움을 주는 일은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착한 일은 행할 것이며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언제나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중아함 제 3 권 14 경 <라운경(羅云經)> -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부처님은 누구보다 이 아들을 출가시켜 수행자로 만들고 싶었다. 부처님은 고향인 카필라로 돌아온 지 이레만에 라훌라를 출가시키기로 결심했다. 위대한 성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왕관이 아니라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사리불을 시켜 라훌라의 머리를 깎게 했다. 라훌라의 나이 12 살의 일이었다.

그러나 라훌라는 아직 장난기가 덜 가신 소년이었다. 그는 사리불의 자상한 지도를 받았지만 부처님의 아들임을 내세워 교만하게 처신했고 자주 말썽도 일으켰다. 누가 부처님을 찾아오면 외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골탕을 먹이는 일도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처님은 라훌라를 불러 엄하게 나무랐다. 이 경전의 그때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 라훌라는 누구보다 어려운 일을 잘 참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사리불과 외출하는 중에 외도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모독하고 폭행을 가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소년은 ‘나의 아픔은 잠깐이지만 저 사람의 악업은 오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며 도리어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과연 ‘용의 새끼’다운 모습이였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라훌라를 가리켜 부처님의 10 대 제자 중에 인욕을 가장 잘하는 밀행(密行)제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라훌라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자상한 모습 때문이다. 부처님은 라훌라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감싸안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참된사랑'을 베풀고 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스승으로서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라훌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아버지들은 부처님의 이런 모습에서 한 수 배울 일이다.

불교용어 공부: 말세(末世)

-불법이 쇠퇴한 세상, 불교 三時觀서 유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세상, 카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강도 짓을 하다 결국 부모를 죽이는 세상, 자식같은 어린아이를 성폭행 하는 세상’ 미래의 이야기나, 과거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먼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웃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말세가 따로 없다. 이게 말세지”라고 개탄한다.

말세(末世)는 원래 불교의 삼시(三時)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뒤에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 가르침이 여법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역사관에 입각해서, 그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해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의 시대로 나누는데서 유래했다.

정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살아있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또 실천한 그 결과가 세상에 구현되는 시기를 말한다. 상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실천만이 남아 있을 뿐 그 결과는 세상에 구현되지 않는 시기를 상법이라고 한다. 말법은 그 가르침만이 전해질 뿐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를 말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체로 부처님 입멸 후 500 년을 정법, 그 다음 1 천년을 상법의 시기, 그 다음 1 만년을 말법의 시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모두 엇배이지는 않는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혼탁해져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며 정법이 사라지고 악법만이 성행한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시기이다.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겨 폭행과 살생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그럼 말세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저 그런 식으로 그 때를 맞이해야만 하나? 그렇지 않다. 말세가 부처님 법이 쇠퇴하고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불법(佛法)을 널리 바로 펴면 된다.

법회소식 NEWS

- 매달 3 제주 일요일은 전법기도 및 불교 교리를 발표, 연구, 토론 하는 주 입니다. 신도님들 모두가 불교 교리 연구와 탐구하는 자세로 법회에 임해 주시고, 주제 발표자들은 법회시간보다 조금 일찍 법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사찰에서는 다가오는 2004 년 5 월에 있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서 연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님들 각자가 신심을 다질수 있는 좋은 계기 일뿐 아니라 한국 불교 일천 육백년을 전수해 내려온 전통 연등을 만들어 보는 연등불사에 모두들 동참해 주십시오.
- 1 월 1 일날 있었던 세알법회에는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콜롬비아 지역법등 법회는 법회장소가 확보될때까지 잠정적으로 법회를 쉬기로 했습니다. 법회장소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불자님께서서는 불국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섯제주 법회가 있을때에는 특별야외법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2 월은 추운 날씨 관계로 2 월 다섯제주 법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간서적: 만화 범구경, 대현출판사; 만화 반야심경, 대현출판사; 선암사 연두 꽃잎 개구리, 파랑새어린이; 동승과 노스님, 동아일보사; 석가모니 지혜동화, ㈜은하수미디어; 석가모니 슬기동화, ㈜은하수미디어; 이외수 날다타조, 리즈앤북; 바보들은 항상 머리로 생각한다, 동해출판 등 이상입니다. 책은 대출 책꽂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2003 년 한해동안 보여주신 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신심과 정진, 그리고 신도님들간의 화합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묵묵히 불국사를 후원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불국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전법하신 공덕으로 모든 소원성취 하시고 업장 소멸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